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7(土)	28(日)
맑음 10/21℃	맑음 10/23℃

- News**
- 조선산업 등 집중 육성 ②
 - 서해는 중어선과 전쟁중 ③
 - 신지에 국내 메이저 2관왕 18

- Books**
- 역사를 비관 경조중 환자 14

- Entertainment**
- 광주출신 개그맨 한민관 8



- 차세대 트로이카 대결 9

- Wellbeing**
- 식품 탐구 - 식초 13



유망직업 전망 56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중국산 커피크림서 멜라민

올 41t 수입... 자판기 등 21t 유통 해태제과 과자서 2건 추가 검출

과자에 이어 중국산 커피크림에서도 독성물질인 멜라민이 검출되는 등 먹을거리 과문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창에프씨의 '베지터블 크림 파우더 F25'와 해태제과 '미사람 카스타드' 제품 2건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베지터블 크림 파우더 F25 제품은 커피믹스와 자판기용으로 쓰이는 식물성크림으로 몰들어 41t이 수입됐으며 이 가운데 16t만 압류되

고 나머지는 팔려나갔다.

식약청은 중국산 식품에서 추가로 멜라민이 검출됨에 따라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유가공품 함유 중국산 식품 304종에 대해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유통·판매를 금지했다.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전국 시·도에 통보해 이들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멜라민 검출 우려가 있는 커피크림 등 중국산 식물성크림은 올해만 약 4천308t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

다. 이들 제품은 함유 같은 식물성 유지가 주 원료이며 식품첨가제 카페인 등과 혼합해 우유크림을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위해관정을 받은 수입 과자·사탕류가 800여건에 달하고 있으나 회수율은 9.9%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암 가능성으로 국내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쓴 식품 회수율은 1%에 불과했다.

식약청은 유통금지 조치가 내려진 제품을 발견하면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나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李 대통령 “어린이용부터 빨리 조치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식품 및 약과 관련해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확산되고

있는 ‘중국발(發) 멜라민 사태’ 점검차 녹번동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전격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정식품 한번 하고 나면 다시는 못하

도록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거듭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윤여표 식약청장으로부터 최근 멜라민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성인용보다 어린이 용을 더 빨리 (조치)해야 한다”면서 “유통을 중단하고 검사를 빨리해 결과를 밝히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정부 “수도권 규제 옥 먹더라도 풀겠다” 지자체·지역균형발전단체 강력 반발

정부가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공식화해 국토 균형발전을 의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6일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옥을 먹겠지만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10월 중엔 수도권에 관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 초청 토론회에 참석, “수도권이 공장 총량제로 묶여 있어

문제가 많다”는 심재철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정 장관은 “합리적으로 보면 수도권 규제가 많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고 공장도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안다”면서 “수도권 공장 신·증축 문제에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도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책은 지역경제 고사시키는 일이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협의체’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

회의’ 등 지역균형발전 단체와 비수도권 지자체 등은 지난 24일 충남 연기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촉구하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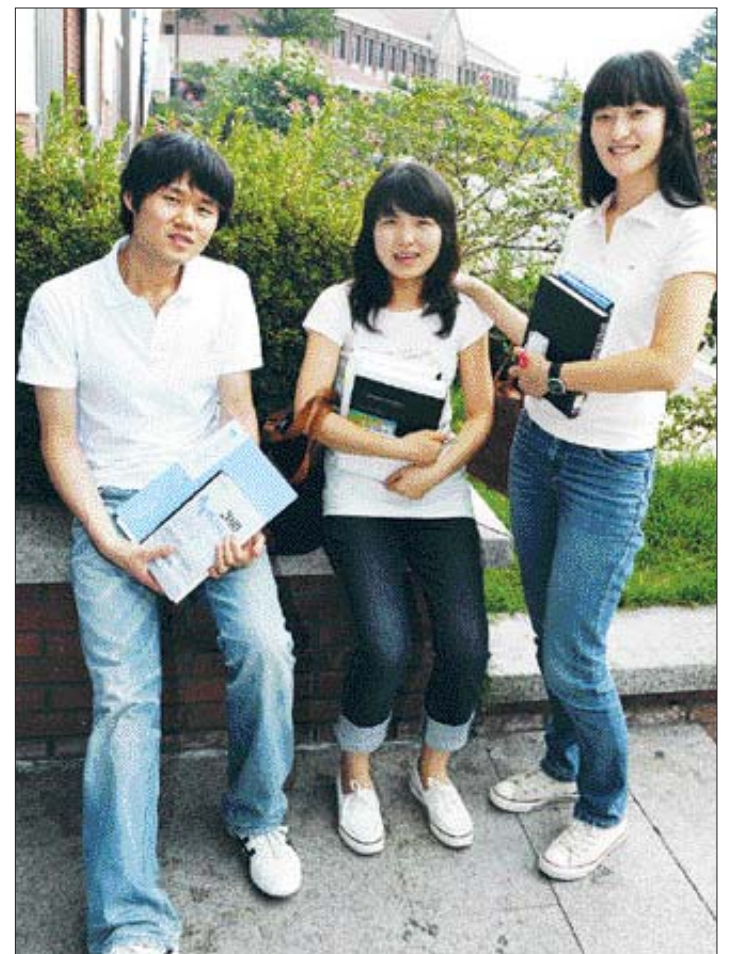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 심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신세계 유통 프런티어 공모 최우수상 전남대 소경환·박하영·조다원씨

“자신감으로 300대1 뚫었죠”

설문조사 등 차별화 지방대 핸디캡 극복 신세계 입사 지원맨 서류전형 면제 특혜



소경환(27·전남대 경영학부 4년)·박하영(여·22·전남대 경영학부 4년)·조다원(여·20·전남대 경영학부 3년)씨는 주변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최근 신세계 주최로 열린 ‘제 9회 신세계 대학생 유통 프런티어 공모전’에서 당당히 최우수상을 거머쥐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국 대학·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된 300여개 팀과의 경쟁에서 1·2차 심사 관문을 통과, 최우수 수상자로 결정되면서 3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신세계 입사지원시 ‘서류전형 면제’라는 인센티브까지 받았다.

신세계 공모전에서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우수상을 받은 소경환, 조다원, 박하영(사진 왼쪽부터)씨가 26일 전남대 캠퍼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특히 공모전 수상 시 지방대 출신이란 핸디캡을 딛고 바늘구멍만큼 좁은 취업 전선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취업 5종세트’의 하나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대학 선·후배, 친구들의 부러움이 대단하다.

이들은 ‘광주 신세계 백화점과 E-마트의 상호보완적 환경 조성’이라는 제목으로 ‘백화점과 할인점간 상생 방안 및 지하 이동통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최우수 상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공모전 입상경력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모전 준비 과정을 통해 기업에 대한 지식과 현안, 자신감 등 취업 관문을 뚫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도전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지방대 출신이지만 공모전을 통해 당당히 전

국 대학생들과 실력을 겨뤄보면 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도 이들의 도전 의지를 부추겼다.

소경환씨는 “지방대 출신의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전국 대학생들과 겨룰 수 있는 공모전에 도전하게 됐다”며 “유통업계에 진출해 꿈을 꾀겠다”고 말했다.

조다원씨는 “남들 다 가는 피서도 안 가고, 백화점·할인점을 돌아다니고 민망하게 거절당하면서 설문조사를 했던 기억이 난다”면서 “신세계를 미래 직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서류전형 면제라는 기회가 덤으로 주어져 너무 기쁘다”고 했다.

박하영씨는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서류전형 통과라는 특전을 주기 때문에 공모전에 입상하는 것이 취업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지방대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취업하기가 더 힘들다고 하는 것보다 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를 정한 뒤 남들과 차별화할 만한 ‘스펙’(specification)을 갖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소씨 등은 오는 10월 1일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상장 및 3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김지을기자 dok2000@

이 시대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뮤지컬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제작된 뮤지컬

뮤지컬 시카고

10.3~10.5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www.ticketmaster.co.kr

CHICAGO